

우리가 만일 전시를 하게된다면 그 전시 명칭을 “능력주의의 신화 흠치기”로 꼭 할 필요는 없겠지요? 박용석님은 이 명칭이 좀 거시기하다고 하던데...

그러나 우리의 전시가 이 개념을 감싸고 도는 전시가 되어야 하는 것 만은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능력주의의 신화 흠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말해보는게 필요할 듯 하네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지요. 저는 능력있는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주의적 경쟁 체제가 자유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시기에 태어나서 성공적으로 여지껏 살아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소유의 집, 자동차, 대학교육까지 시켜 독립시킨 자녀들, 중견 작가, 미술 대학 교수, 이런 지표들을 볼 때 말이죠. 그러나 능력 담론의 무한 경쟁 속에서는 저 또한 결코 성공한 자 라고 볼 수 없죠. 더 많은 재산, 더 잘 팔리는 그림, 더 높은 수준의 학력 세습 등등이 내 앞의 목표로 아직도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무한 경쟁의 속도전에서 몸을 빼내어 자족함을 누리자는것, 이것이 기본적인 제 입장입니다. 네, 물론 제 얘기가 좀 재수없죠? 어느 정도 성공한 후에 성공 가도에서 몸을 빼어 성공의 열매도 누리고 성공 가도의 압력도 벗어나려는, 한마디로 연금생활자의 그것처럼 배부르고 등따스운자의 여유로움으로 들릴테니까요..그렇습니다 그렇게 비난 받아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능력주의 신화 흠치기- 무능력 담론의 수행”이라는 화두를 언술화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나의 실존이 이것을 필요로 하니까요. 무능력 담론의 수행이 내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에요....G7인지 G8인지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의 무지 막지한 경쟁 체계가 주는 압력이 너무 쎄니까요. 이라크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들이 너무 미우니까요. 수구 꼴통 한나라당을 봐 주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민노당이 너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요새 글쓰기에 피가 나서 한줄도 쓰기 힘들 것 같더니 막상 시작하니 요설이 펼쳐지네요 .)

개발 압력을 견뎌내는 낡은집, 증오하며 외면했던 엄마와 다시 만나는 딸, 보살핌의 손길이 그리운 집안 노인분들을 돌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헌신이 아니라 보상받는 노동이어야 한다고 믿는 백조, 지워진 그림,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네요.

네, 저는 그림을 지웁니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쌓여있는 십수년 전에 그린 그림들을 꺼내 물감을 덧칠하여 지웁니다. “지움-또는 지워진 그림”이죠. 이상이 저의 “능력 주의의 신화 흠치기- 무능력 담론의 수행” 제 1과입니다.